

생태주의 환경관의 재구성을 통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분석과 환경교육적 시사점

박미화¹ · 김기대^{2,†}

¹광주학운초등학교 · ²한국교원대학교

An Analysis of the Native North Americans' Environmental Views by Reorganized Ecocentrism and the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Mee Hwa Park¹ · Kee Dae Kim^{2,†}

¹Gwangju Hakwoon Elementary School · ²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ed to change the technocentric view of environment into the ecocentric one to overcome ecological crisis today. Thu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organize characteristics of ecocentrism, to analyze ecocentrism of Native North Americans as a realistic model, and to finally find suggestions to environment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cocentric perception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pursues co-existence through harmony and balance based on holistic understandings. And the ecocentric perception on relationship among human beings attempts to preserve environment by overcoming rule structure among them. The ecocentric perception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spirituality is to set life goals to achieve spirituality rather than to pursue material life. Second, Native North Americans have a holistic world view that human beings and nature are an inseparable one through the symbol of 'the Sacred Circle'. They also lived simple lives which satisfies vital needs instead of pursuing material live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n relationship among human beings. When it comes to the perception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spirituality, they feel sacredness from all things in daily life and want to have peaceful relationships with their own inside through spirituality toward 'Mother Earth'. Third, the ecocentrism of Native North Americans make suggestion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confirm again what roles of human beings are in ecosystem, and that it helps students develop ecological sensitivity by giving them many opportunities to go to field trips. Furthermore, environmental education helps them positively think about and actively choose simple life. In addition, it has to be designed to help students seek sacredness in daily life through ecological imagination.

This study has values of newly organizing characteristics of each ecocentric idea by integrating it from complementary aspects, and pursuing direction of ecocentrism and its realistic possibility by analyzing the ecocentrism of Native North Americans as a model of ecological life.

Key words : environmental views, ecocentrism, Native North Americans, environmenta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kdkim@knue.ac.kr, Tel : +82-43-230-3727, Fax : +82-43-232-71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환경 위기는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이며, 우리의 사고와 지각과 사상과 모든 판단의 위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Orr, 1992).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의 눈 즉 환경관(環境觀)을 바로잡는 것이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교육을 통해서, 특히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김대희, 1997; 조용개, 2001).

그동안 서양 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인간중심적 기술지향주의 환경관은 환경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를 낳았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와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생태주의 환경관이다. 이러한 생태주의 환경관은 근본 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등 다양한 생태주의 사상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고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사상들은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큰 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생태주의 사상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한계점들을 상호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통합된 전체인 생태주의 환경관으로 다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생태주의 환경관으로의 지향점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으나 생태주의적 삶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쉽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생태주의 환경관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북미 원주민을 상징하고, 그들의 생태적 삶 속에서 생태주의 환경관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고

자 한다.

UNESCO에서 제작한 「Teaching and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프로그램 중 11번째 ‘토착지식과 지속가능성(Indigenous knowledge and Sustainability)’ 모듈에서 원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오늘날의 교육과정 속에 녹여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북미 원주민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생태주의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시애틀 추장의 시적이고 예언적인 연설은 초등 국어교과서와 중등 환경교과서 등에 실릴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시애틀 추장 뿐만 아니라 많은 북미 원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서구문명에 대한 훌륭한 문명 비판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구성해 보려는 현대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박창길, 2003).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북미 원주민의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나 마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환경관을 생태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환경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환경관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생태주의 환경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북미 원주민의 환경관을 분석해 보고 오늘날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주의 사상들의 통합을 통한 생태주의 환경관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생태주의 환경관의 관점에서 본 북미 원주민의 환경관은 어떤 모습인가?

셋째, 북미 원주민의 환경관이 오늘날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태지향주의 환경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경관을 크게 구분하여 본다면 하나는 종래의 계몽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지향주의 환경관이며, 다른 하나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태 사상에 바탕에 둔 생태지향주의 환경관이다.

기술지향주의 환경관은 자연을 인간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지배 논리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론원적 세계관이 함께 만들어낸 환경관으로 환경 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기술지향주의적인 지배적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학적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생태지향주의 환경관이 대두되었다. 이는 탈인간중심적이고 전체적 조망에 바탕을 두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환경관으로 여러 유형의 생태주의 사상들을 낳았다.

먼저 생태지향주의 환경관을 철학적, 윤리적으로 정리하고 나선 것이 1973년 노르웨이 철학자 Arne Naess였다. 그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가 환경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근본 생태학(deep ecology)을 주창하였다. 이후 Murray Bookchin은 환경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하면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또한 생태 위기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회 생태학(social ecology)을 표방하였다. 사회 생태학과 함께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환경위기의 원인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지적한다. 이밖에도 정의의 관점으로 사회는 물론 자연의 영역까지 보고자 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등 다양한 생태주의의 흐름이 이어진다.

2. 원주민과 환경교육과의 관계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세계의 원주민은 대략 3억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70개국 이상 5,000여개의 다른 집단을 포함한다. 원주민

들은 사회의 비주류 영역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형태, 사회 제도, 법적 체제에 따라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의 근본이 되는 인종의 주체성과 조상의 영토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http://www.unesco.org/education/tlsf>).

원주민 사회는 자연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원을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환경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UN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원주민의 태도와 가치를 다양한 원주민 문화를 통해 그리고 세대를 통해 배울 것을 권하고 있다(<http://www.unesco.org/education/tlsf>).

또한 북미 원주민들의 생태주의적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Bill(1988)은 「Breaking the Sacred Circle」를 통해 북미 원주민이 자연과 균형과 조화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신성한 원'을 오늘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재를 펴냈고, Lane(1984)은 「The Sacred Tree」라는 원주민들의 영성 생활 지침서를 펴낸 바 있다. Cajete(1994)가 펴낸 「Look to the Mountain : An Ecology of Indigenous Education」는 원주민 교육의 철학적인 기초를 자연 친화적인 문화와 영성, 환경교육에 초점을 두고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원주민의 세계관과 그들의 생태중심적인 환경관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이용되고 있는 점은 원주민의 전통 교육이 오늘날 환경교육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 북미 원주민에 대한 이해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북미대륙에는 500개의 언어 집단에 2,0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이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통과 문화도 다양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북미 원

주민들의 역사는 비극을 맞게 되었으며, 현재 북미에는 약 500개의 부족이 278개의 원주민 구역에서 살고 있다(<http://cwmpcts.org>).

북미 원주민 문화의 바탕은 시간성보다는 공간성, 자연에 대한 지배보다는 조화, 생존 경쟁보다는 공생의 법칙, 과학·물질문화보다는 정신문화, 땅의 소유 개념보다는 공개념 및 공동 소유, 끊임없는 발전 추구보다는 자족하는 삶 등을 들 수 있다.

북미 원주민들의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는데 있다. 생산, 파괴, 재생의 원천인 대지를 존중하고, 인간은 영적으로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원주민 사회는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모권사회였으며, 토지는 상품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인간과 동식물에게 부여된 선물이므로 특정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이형호, 2000). 북미 원주민에게 있어 전통적인 교육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간의 언어와 행동, 일상생활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조일, 2005). 그들에게는 자연이 곧 학교였고, 부모들의 삶 자체를 바라보고 따라 하는 것이 공부였다(서정복, 2005).

북미 원주민들은 고전주의 시대에는 ‘야만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환경론자들이 북미 원주민의 생활방식과 자연관에 점차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생태적 인디언(Ecological Indian)’이라는 칭호도 등장했다(김옥동, 2003).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근본 생태주의(deep ecology)와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생태주의 사상이 가지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자는 각각의 생태주의 사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구성 방법으로 ‘관계성’에 주목하였고, 세 가지 관점, 즉,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의 관점에 의하여 각 생태주의 사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생태주의 환경관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 연구는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외에 소개된 북미 원주민 관련 서적이거나 연구물들을 통해 그들이 남긴 연설문이나 말, 노래, 이야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북미 원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wisdomoftheelders.org>)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미 원주민들이 직접 들려주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장자들의 지혜(Wisdom of the Elders)’라고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북미 원주민들의 구전(口傳) 전통을 살리고 있는 곳이다. 이 사이트는 부족의 역사, 연장자들의 지혜, 예술, 건강과 치유, 옛날이야기 등 각 부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원주민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수집된 문헌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북미 원주민들의 환경관을 생태주의 환경관의 관계적 관점에 의해, 즉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기내면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이 오늘날 생태주의 환경관으로의 지향점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생태주의 환경관의 재구성

본 연구자는 생태주의 환경관을 각 생태주의 사상이 주목하고 있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성에 대한 인식

은 자연, 사회 그리고 인간 내면에 대해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법으로써 각각의 존재들이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각 존재들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데 기인한다.

Warren(2000)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관계 속의 존재’로 보았다. 비인간계인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고 인간을 설명하는 ‘관계’ 또는 ‘관계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볼 때 근본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고 사회 생태주의나 생태 여성주의, 환경정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근본 생태주의와 생태 여성주의는 인간 내면의 영적인 부분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찾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영성(spirituality)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밝히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준모(2006)는 오늘날 생태주의 이론이 근본생태론, 사회생태론, 영성생태론으로 나뉘어 통합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이러한 비통합 현상은 이 세 관점들이 사태(事態)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준모는 개념적으로만 보더라도 세 입장이 고집하고 있는 근본 사회, 영성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각각은 내용적으로 자연, 노동, 자기의식의 표현이며, 생태의 요소들을 이루는 자연-노동-자기의식의 통일적 구조의 부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준모의 표현에 나타난 자연, 노동, 자기의식의 세 부분은 결국 자연, 사회, 영성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태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생태(자연), 공동체(사회), 영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즉다(一則多), 다즉일(多則一)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홍용희, 2007).

그리고 자연, 사회, 영성은 서로 상호의존적이고 부조(扶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생태적일 때 사회와 영성과의 관계도 생태적일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가 생태적일 때 자연과 영성과의 관계도 생태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내면인 영성과 이루는 관계가 생태적일 때 자연과 사회와 이루는 관계도 생태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셋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 생태주의라고 볼 수 없다. 자연만 강조한다면 환경운동이 될 것이고, 사회만 강조한다면 아나키즘이 될 것이고, 영성만 강조한다면 종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는 자연, 사회, 영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정성화, 2008).

이준모(2006), 한면희 외(2002), 홍용희(2007), 정성화(2008) 등의 주장에 나타나 있듯이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영성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관계 인식은 환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 사회, 영성과 생태적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생태주의 환경관이 가지는 특징들을 재구성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분석

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Hughes(1996)는 북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people(부족)’이라는 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이나 바람, 물, 바위 등 모든 자연의 존재가

표 1.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

구분	생태주의 환경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에 대한 반성 ·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전일적이고 전체적(holistic)인 이해 ·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상생 추구 ·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존재의 평등 선언 · 생태적 감수성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추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나 집단의 서열화가 자연에 대한 억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반성 · 인간 간의 지배 구조 극복을 통해 환경 보전을 이루고자 함 · 소규모 공동체적의 삶 지향 · 소박하고 소비적이지 않은 도덕적인 경제 공동체 추구 · 적정 기술과 비지배적 과학을 인정 ·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정치 공동체 추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 추구 · 자유에 대한 인정과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성을 부정하고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반성 · 물질적 삶의 추구보다 영성의 고취를 통한 생명 존중과 생명 살림을 추구 ·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존재의 영성을 인정하고 존중함 · 편협한 자아를 넘어서서 자신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일화 과정을 통해 큰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목표로 함 · 자연을 통한 깨달음, 자연과의 합일 등을 통해 영성의 성숙을 추구 · 배려와 보살핌, 공경 등이 바탕이 된 생태윤리의 촉구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Dancing Feather & Robinson(2003)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기 위해 1978년에 50개 부족의 전통 문화 가치들을 종합한 결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동적인 인식, 즉 자연과 자연 세계의 창조물들에 대한 존경과 조화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미 원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신성한 원(The Sacred Circle)'의 상징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곰의 마음'은 원의 상징을 통한 자연의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ear Heart & Larkin, 1996).

우리 부족은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그 '신성한 고리'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한 우주가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 '신성한 고리'는 모든 '생명의 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네 방향, 지구, 그 밖에 지구에 사는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인간은 물론이고, 네발 달린 짐승, 날개 달린 새들, 물에 사는 것들, 땅에서 기는 것들, 그리고 식물들까지이다. 모든 것은 그 '신성한 고리'의 일부이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존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성스러운 고리' 안의 모든 것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이분적인 분리를 극복하고 관계적·전체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태주의 환경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북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으로써의 자연은 모든 존재들의 존재적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존재 속에는 신성한 영혼이 스며 있으며, 모든 사물과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 대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존재의 내재적이고 고유한 가치에 대한 북미 원주민들의 생각을 '구르

는 천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류시화 역, 2002).

문명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식물을 잡초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잡초라는 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풀들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쓸모없는 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북미 원주민들은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인간과 자연은 모두 신성한 원 안에서 동등한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생명체로 상호존중과 생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

북미 원주민들은 존재의 관계성을 거미줄로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거미 여인'이라는 창조 신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원주민의 창조 신화에서도 보듯이 원주민의 자연관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의 사슬에 있어 하나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시애틀' 주장의 연설 속에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김종철, 2005).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북미 원주민들은 대지를 생명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모성적 이미지와 연결시켜 '어머니 대지(Mother Earth)'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라코타(Lacota) 부족인 루터 스탠딩 베어는 대지에 대해서 "우리는 땅의 것이고,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해왔고, 인디언 시인이자 비평가인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은 북

미 원주민의 가치관이 "우리는 땅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Allen, 1992).

북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 대지에 대한 생각은 모든 존재들을 한 친척과 형제로 묶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들이 즐겨 나누는 인사인 '미타쿠에 오야신(mitakuye oyasin)'이라는 말은 '내 모든 친척들'이라는 의미로 땅 위의 인류와 가장 미세한 곤충, 가장 작은 식물까지 모든 존재들이 모두가 친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Lame Deer & Erdoes, 1994). 생태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은 북미 원주민들의 눈에는 한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코타의 위대한 추장, '두 발로 선 곰'은 인간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서정록, 2005).

모든 존재는 각각의 생명력과 인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점은 고작 외모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며, 그곳의 책들은 돌들과 나뭇잎들, 풀들, 시내들, 그리고 대지와 성난 태풍과 부드러운 축복을 공유하는 새들과 동물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뿐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뿐이다.

원주민들이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은 그들이 붙인 열두 달 이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열두 달 이름을 부족들마다 가지고 있다(류시화, 2003). 생태적 감수성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생태주의 환경관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1월 :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아리카라족), 눈이 천막 안으로 휘몰아치는 달(오마하족)

4월 :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체로키족),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블랙풋족)

6월 :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체로

키족), 옥수수 수염이 나는 달(위네바 고족)

11월 : 기러기 날아가는 달(키오와족),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아라파호족)

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북미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지에 대해서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충분하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부족과 나누어야 하는 나눔의 대상이지 문명사회처럼 물질을 축적해서 자본을 쌓고 이를 통해 경제적 계급을 형성하는 수단이 아닌 것이다. 북미 원주민들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축적하지 않고 서로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물질에 경도되는 것을 막고 경제적 평등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것은 '시에틀' 주장의 다음과 같은 연설 속에 잘 나타나 있다(김중철, 2005).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북미 원주민의 경제행위는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얻은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히 사용하는 한 쌍의 효율적 이용의 원칙을 따랐다. 예를 들어 버팔로 사냥을 지켜본 백인 목격자는 "2,000마리 버팔로 중 41마리만 사냥했다. 사냥이 잘 되었지만 대량으로 잡지는 않았다. 또 사냥한 짐승의 어느 부분도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Hughes, 1996).

북미 원주민들은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회에서 담당할 역할 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부족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사람,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쌓은 현인, 어린 아이는 상식과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살아있는 보물로 생각하며 일체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1870년대 산악 안내인 탐 뉴캄은 원주민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김원중 역, 2001).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나이든 사람, 과부들과 고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돌보았다. 캠프를 옮길 때마다 그들 중의 누군가는 신경을 써서 과부의 천막을 제일 먼저 옮기고 제일 먼저 세웠다. 사냥을 한 후에는 매번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가장 필요한 집 문 앞에 떨어뜨려 주었다. 나는 형제처럼 대접받았다. 강조하건대 그 인디언 무리만큼 진정한 기독교도들로 구성된 교인들의 공동체를 이제까지 나는 본적이 없다.

북미 원주민 부족들의 언어에는 7세대라는 말이 있다. 미래 세대와 공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도 현 세대가 독점적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Hughes, 1996).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오네이다 족의 치료사 '와나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다(류시화, 2003).

거북이 섬¹⁾의 주민들은 약초를 캐 때도 먼저 그 약초의 추장인 그 지역의 가장 큰 약초에게 선물을 바치고 허락을 구했다. 허락을 받는다 해도 처음 발견하는 일곱 개의 약초는 손대지 않았다. 약초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다음 일곱 세대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북미 원주민들은 자연을 보며 모든 것을 배웠다. 자연의 다양한 모든 종들은 자유로운 자기 선택에 의해 계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 마찬가지로 인간

1) 북미 원주민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거북이 섬 또는 큰 섬이라 불렀다.

도 자유로운 자기 선택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자신들이 누리려는 자유를 자연의 모든 존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발전되어 나갔고, 그들이 자연을 억압하지 않고 잘 보존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

과학은 보이는 세계만의 인과 관계를 다루나 동양 사상이나 원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관계망의 범위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명확성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마주치는 것이 불명확성의 세계다. 즉, 보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비의 영역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북미 원주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했고 이것은 신성하고 신비한 영역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확장된 우주의식 또는 심층의식인 영성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고자 했다.

북미 원주민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성한 원’ 안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관통하며 흐르는 신성한 생명력이 있고 따라서 모든 존재들 안에는 신성이 고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물도 단순히 액체인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Judy bluehorse Skelton은 신성한 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ttp://www.wisdomoftheelders.org>).

원주민에게 물은 신성한 것이다. 단지 살아가기 위한 물질로써가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첫 치료제이며 정신과 영혼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에서도 물은 신성시된 예가 많다. 카톨릭 교회의 성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교회 밖에서는 신성시하는 물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문명인들은 교회 안에 성수(聖水)를 따로 모셔놓고 그 물만을 신성시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모든 물이 신성하다. 그들에게는 성(聖)과 속(俗)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이 성소(聖所)고, 일상의 모든 것이 성물(聖物)인 것이다. 일상의 신성을 다코타족이면서 원주민 최초의 의사였던 Ohiyesa는 다음과 같이 빗대어 말하고 있다(류시화, 2003).

동정녀 잉태는 세상에 태어난 많은 아기들보다 신기할 것이 조금도 없는 이야기야. 빵과 물고기의 기적은 옥수수 한 알을 심어 수많은 옥수수를 수확하는 일보다 조금도 놀라운 것이 없지.

곰의 마음은 “우리 부족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모든 걸음걸이가 하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다(Bear Heart & Larkin, 1996). 즉, 이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기도이며, 이로써 영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북미 원주민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것을 중시했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부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한 사람의 역할과 자아 발견, 그리고 카르마는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인종과 민족,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Branham 추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ttp://www.wisdomoftheelders.org>).

아버지께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다고 즉 모든 사람은 각자 존재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내게 하시곤 했다. 그러니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북미 원주민 공동체는 모든 부족의 일원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영성이 깊어지는 길이 부족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무척 중

요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비전 탐구나 달거리 오두막, 정화 움막, 단식 등의 의식, 일상의 기도, 깨어있는 명상,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침묵, 의례, 노래와 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Ohiyesa는 원주민들이 하는 명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Ohiyesa, 2003).

당신들은 명상에 대해 말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 앉아서 단순히 눈을 감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명상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상은 자연에서 무엇을 취할 때마다 그것이 음식이든, 공기이든, 그 무엇이든 그 답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명상은 깨어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우리 원주민들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아무 차이가 없다. 언제나 대지 위에서 서 있으며 진정한 세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며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출발이다. 바로 그 때 당신은 작은 자아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북미 원주민은 땅을 여성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 대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모든 부족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들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듯 땅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준다고 생각한다. 스타호크는 땅이 생명력을 주는 것을 땅에 기초한 '영성'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세 가지 핵심 개념인 보편내재, 상호연관성 그리고 보살핌과 배려라고 말하고 있다.

3.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의 환경교육적 시사점

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북미 원주민들의 환경관은 인간과 자연은 결국 하나라는 철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도 만물의 공간적 존재성과 시간적 변화상을 하나로 관통하는 총체적이고 전일

적(holistic)인 자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서 이원론적 세계관이냐 인간중심주의가 들어있는지 분석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환경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은 인간이나 동식물 심지어 광물, 대지, 공기, 물 등 모든 존재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자연의 신성, 즉 만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때 학생들은 자연을 함부로 다루거나 개발의 대상만으로 보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존재의 무게를 느끼며 자연을 대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환경문제나 환경쟁점에 대한 토의 토론 학습을 할 때 자연을 타자화(他者化)하여 개발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오류를 학생들이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이나 식물도 권리를 갖는가, 인간에게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할 권리를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등 자연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 수업의 과정이 환경교육에서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북미 원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내재적 가치의 인정은 생태윤리로 발전되었다 자신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자연에게 비윤리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삶을 단순화시키고, 자연적인 흐름 속에 하나가 되어 살았다.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좁은 의미의 윤리를 보다 확장시켜 모든 생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윤리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생태윤리 부분에 있어서 생태윤리학자들의 몇몇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생태윤리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생태윤리에 대한 내용을 환경교육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북미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어머니 대지의 일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북미 원주민 아

이들은 늘 자연과 가까이 접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생명의 찬란함도 분명히 인식하였다. 오늘날 환경교육에서 자연 속에 나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일회적이고 이벤트식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키우고, 생명 있는 것들과의 공감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감동과 전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체험 학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 학습이야말로 자연과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연과의 합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생활양식 속에서 북미 원주민들의 소박하고 나누는 삶의 태도를 되살리는 길은 학생들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 소비가 아닌 자연과의 삶을 통한 정신적 고양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추구는 불필요한 욕망과 물질적 풍요로부터 한발 벗어난 소박한 삶의 방식을 가치롭게 여기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에서는 소박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가치로운 인생을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 소로우, 니어링 부부, 간디 등 많은 생태적 삶의 모범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이 되어 그 지역의 식수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또한 토지는 어떤 성질인지, 이 지역의 수목 경계선은 어딘지 등 그 지역을 생태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Devall & Sessions, 1985).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교사들이 그 지역의 환경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북미 원주민 공동체는 사회, 정치, 경제, 문

화의 모든 부분이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생태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움직였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북미 원주민 여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연 자원의 관리자로서, 부족의 삶을 주도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늘날 환경교육에서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력 등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가족의 삶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억압과 수탈의 종식은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지배와 수탈의 종식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환경 문제를 환경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게 하는 환경교육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 쟁점들을 찾아내어 치열한 토의,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환경 의사 결정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

오늘날 환경교육은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Queensland 주에서는 ‘신성성(sacredness)’을 환경교육 목표에 넣고 있다 그들은 ‘신성성’이란 그것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그것에 내재된 가치라고 느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부여한 성질이며, 이 ‘신성성’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련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간과 자연의 안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박태운, 정완호, 최석진, 최돈형, 이동엽, 노경임, 2003).

여기에서 말하는 영성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

할 뿐이지 일상의 평범함 속에 깃들여 있는 자연과 우주의 신성함을 볼 수 있고,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와 대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감지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로 들어가 존재의 의미를 더듬게 되면서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깊어진 영성은 자연의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환경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볼 수 있게 하며, 자연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환경교육이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삶을 좀 더 깊고 고귀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정신적 에너지인 영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수련과 수행의 방법들을 환경교육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요가나 참선, 단전 호흡이나 명상 등과 같은 다양한 심신 수련 방법들을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영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정수복, 2001), 이는 곧 환경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찾아 재구성하고, 생태주의 환경관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다양한 생태주의 사상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통합할 수 있는 재구성 방법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표 2.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과 환경교육적 시사점

구분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환경교육적 시사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한 원(The Sacred Circle)’의 상징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인식 · 신성을 내재한 모든 존재의 평등을 인정 · 생명의 거미집 안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 중시 · 어머니 대지와와의 일체감과 존경심 · 아름다움으로 만나는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총체적이고 전일적이며 관계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교육 목적 설정 필요함 · 자연의 내재적 가치 인정을 통해 생태 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내용 선정 필요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을 소유나 축적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경제적 평등 공동체 · 소비적 삶이 아니라 생리적 필요(vital needs)를 충족하는 소박하고 단출한 삶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 사회적 서열화를 거부 · 7세대 즉,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 평등한 참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 다양성 인정과 자유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소유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인 소박한 삶과 자발적 가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제공해야 함 ·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회적 약자, 환경적 약자, 미래의 약자에 대한 고려 하에서 사회의 구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이 곧 종교였으며 일상에서 신성을 찾음 ·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비전 탐구를 함 · 자연에서, 자연을 통한 깨달음 추구 · 어머니 대지에 대한 영성 즉, 배려와 보살핌, 공경의 자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내면의 세계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간 육성에 교육 목적을 두어야 함 · 자연과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련과 수행의 방법들 수용 필요 · 배려와 보살핌의 생태 윤리의 강조

인식,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접근 방법은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북미 원주민의 환경관을 생태주의 환경관의 세 가지 관계 인식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식에 있어서 그들은 '신성한 원'의 상징을 통해 전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고, '어머니 대지'와의 일체감과 존경심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풍부한 감수성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에 있어서 북미 원주민들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인간의 서열화와 지배가 자연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연결되지 않는 공동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과 영성과의 관계 인식에 있어서는 어머니 대지에 대한 영성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북미 원주민의 환경관은 생태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서 오늘날 생태주의 환경관의 지향점과 실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이 오늘날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재확인과 총체적이고 전일적(holistic)인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와 그 환경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과 경제적 생산성보다는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 윤리에 바탕을 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며 자연을 통해 계속적으로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도록 하는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이 생태주의 환경관을 지향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야 하며, 내면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실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북미 원주민의 생태

적 삶의 모습을 환경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로는 불충분하며 문화기술적 연구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좀 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보며 북미 원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과 전통적 삶의 양식 안에 녹아있는 생태주의를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김경옥 (2002). 레슬리 마몬 실코의 '의식'을 통해 본 생태비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대희 (1997).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따른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환경교육**, 10(2), 19-49.
3. 김옥동 (2003).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4. 김종철 (편). (2005). **녹색평론선집 1**, 녹색평론사.
5. 류시화 (200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6. 박태윤, 정완호, 최석진, 최돈형, 이동엽, 노경임 (2003). **환경교육학 개론**, 서울교육과학사.
7. 박창길 (2003). 북미원주민의 환경사상, **민족문화논총**, 27, 341-342.
8. 서정록 (2005). **지금은 자연과 대화할 때**, 열린책들.
9. 이준모 (2006). 생태적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생태교육연구소 봄 자료집**, 1-42.
10. 이형효 (2000). 미국 인디언의 과거와 현재, **북미연구**, 제6권.
11. 정성화 (2008). 생태주의 패러다임과 생태주의 교육 모색, **제주 환경교육 직무연수 자료집**, 271-330.
12. 정수복 (2001). 사회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심층생태론의 관점에서, **환경교육**, 14(1), 92-106.

13. 조용개 (2001). 생태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환경윤리교육의 모형정립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조일 (2005).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와 한국 무속 문화의 유사성에 대한 고찰, *국악과 교육*, 3, 109-125.
15. 한면희, 강영주, 김연순, 박희성, 이수종 (2002). 생태적 합리성 및 감수성 제고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환경교과서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부.
16. 홍용희 (2007). 생태적 삶과 환경윤리의 만남, *윤리 연구*, 64, 129-156.
17. Allen, P. G. (1992). *The Sacred Hoop-Recovering the Feminine in American Indian Traditions*, Beacon Press books.
18. Bear Heart & Larkin, M. (1996). *The Wind is My Mother*, Crown Publishers, Inc.
19. Bill, E. W. (1988). *Breaking the Sacred Circle*, Washington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20. Boyd, D. (1998). *Rolling Thunder*, 류시화 역 (2002). 구르는 천둥. 김영사.
21. Cajete, G. (1994). *Look to the Mountain : An Ecology of Indigenous Education*, Kivaki Press.
22. Dancing Feather, F. & Robinson, R. (2003). *Exploring Native American Wisdom*, The Career Press, Inc.
23. Devall, B. & Sessions, G. (1985). *Deep Ecology*, Peregrine Smith Books.
24. Hughes, J. D. (1996). *American Indian Ecology*, Texas Western Press.
25. Lame Deer, J. F. & Erdoes, R. (1994). *Lame Deer, Seeker of Visions*, Peter Basch.
26. Lane, J. P. (1984). *The Sacred Tree*, Lotus Press.
27. Ohiyesa (2003). *From the Deep Woods to Civilization*, Dover Publications.
28. Orr, D. W. (1992). *Ecological Literacy-education and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9. Seton, E. T. (1948). *The Gospel of the Redman*, 김원중 역(2001), 인디언 복음. 두레.
30. Warren, K. J (2000).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Is Matters*, Rowman & Littlefield.
31. <http://cwmpcts.org> (북미 원주민 선교시리즈, 안맹호, 2004)
32. <http://www.unesco.org/education/tls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6)
33. <http://www.wisdomoftheelders.org> (Wisdom of the Elders, 2007)

2009년 7월 28일 접수
2009년 9월 20일 심사완료
2009년 9월 22일 게재확정